

4. 구산서낭제 (14:00, 구산서낭당)

대관령에서 국사성황신을 모시고 내려오던 행렬은 성산면 구산리 서낭당에 들린다. 국사성황을 맞이한 마을에서는 성황신을 모시고 마을 서낭제를 지낸다. 서낭당 제단에 국사성황신의 위패를 모시고 마을에서 준비한 간소한 제물을 올리고 유교식 제례를 지낸다.



5. 학산서낭제 (15:30, 학산서낭당)

학산은 국사성황인 범일국사가 태어난 곳이다. 1999년부터 4월 보름 대관령을 내려온 국사성황신을 모셔 서낭제를 지내고 있다. 마을에서 올리는 유교식 제례가 거행되고 이어서 서낭굿이 펼쳐진다.



6. 봉안제 (18:00, 대관령국사여성황사)

국사성황행렬은 시내를 거쳐 대관령국사여성황사에 도착하여 국사성황을 여성황과 합사하고 제례를 거행한다. 헌관은 초헌관(강릉시의회 부의장 배용주), 아헌관(강릉향교 전교 권우태), 종헌관(강릉시여성단체협의회장 이우임)이 맡는다.



국가무형유산
새강릉단오제보존회

25586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단오장길 1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1층
TEL 033·643·1301
FAX 033·643·1306
www.danoje.or.kr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유산
강릉단오제

국가유산
문화재의 새 이름

2024
강릉단오제

대관령 산신제
대관령 국사성황제
구산서낭제
학산서낭제
봉안제

2024년 5월 22일(수)
10:00~19:00

대관령 산신당·국사성황사 / 구산·학산서낭당 / 대관령국사여성황사

주최 국가무형유산 새강릉단오제보존회 새강릉단오제위원회 후원 국가유산청 한국문화재단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유산
강릉단오제

국가유산 문화재의 새 이름

2024 강릉단오제

단오는 5월의 대표적 명절로 조선시대에 정초, 한식, 추석, 동지와 함께 4명절 또는 5절향에 속하였다. 지난 2023년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강릉단오제는 대관령국사성황을 제사하며, 행로안전과 풍농, 풍어, 집안의 태평 등을 기원하는 제의이자 축제라고 할 수 있다. 천여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강릉단오제는 민중의 역사와 삶이 녹아 있는 전통축제로 음력 4월부터 5월초까지 한 달여에 걸쳐 강릉시를 중심으로 영동지역에서 펼쳐지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축제이다.

음력 4월 5일 신주빚기로 시작하여 4월 15일에는 대관령에 올라가 국사성황사에서 성황신을 모셔 강릉 시내 국사여성황사에 봉안한 뒤, 음력 5월 1일부터 8일 저녁 송신제까지 강릉 시내 남대천 변을 중심으로 제례, 단오굿, 관노가면극 등과 같은 본격적인 단오제 행사를 벌이는 영동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가진 축제이다.

강릉단오제는 지난 1967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고, 2005년에는 그 문화적 독창성과 뛰어난 예술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등재되었다.



* 행사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됩니다.

1. 대관령산신제(10:00, 산신당)

김유신 장군을 산신으로 모시고 있는 대관령산신당에서 강릉의 안녕을 기원하는 유교식 제례를 거행한다. 헌관은 초헌관(동부지방산림청장 최수천), 아헌관(강릉단오제위원회 부위원장 고광록), 종헌관(강릉시산림조합장 이대용)이 맡는다.



2. 대관령국사성황제(11:00, 국사성황사)

굴산사를 창건한 신라 하대의 고승인 범일 국사는 강릉단오제의 주신인 대관령국사성황이다. 강릉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며 유교식 제례를 거행한다. 헌관은 초헌관(강릉시장 김홍규), 아헌관(강릉상공회의소 회장 나영진), 종헌관(강릉시법인택시 협의회장 김주현)이 맡는다.



3. 신목모시기 및 대관령국사성황 행차(12:30)

무녀와 신장부는 성황사 뒤편 숲에서 신이 깃든 신목을 모시고 내려온다. 국사성황행렬은 국사성황 위패와 신목을 모시고 대관령 옛길을 따라 내려온다.

